저칼로리 음료 시장 공략 가속

동아오츠카 "집콕 확찐자 잡아라"

오란씨 3종 40kcal대로 대폭 낮춰
포카리스웨트, 물처럼 가볍게 섭취
설탕 등 '4無' 나랑드사이다 입소문
지난해에 이어 최대 실적 갈아치워

동아오츠카가 오란씨, 포카리스웨트, 나랑드사이다 등의 브랜드를 통해 저칼로리 음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48kcal의 저칼로리를 구현한 오란씨 50주년 기념 신제품 오란씨 키위. 사진제공 | 동아오츠카

나랑드사이다를 소개하고 있는 모델 김재우. 사진제공 | 동아오츠카

동아오츠카가 저칼로리 음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종종 '맛이 별로…'라는 이유로 외면 받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낳은 집콕 생활로 체중이 증가한 일명 '확찐자(살이 확찐 이들)'들이 칼로리(열량)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오란씨·포카리스웨트, 저칼로리로 변신

1971년 론칭해 올해 50주년을 맞은 오란씨가 대표적이다. 오란씨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칼로리를 낮춰왔다. 250ml 캔 기준으로 2010년 70kcal, 2017년 55kcal로 칼로리를 낮췄다.

올해 오란씨 50주년을 맞아 다시금 칼로리 저감을 실현하며, 소비자 건강을 생각하는 음료로 거듭났다. 스테디셀러인 오란씨 파인애플과 오렌지는 49kcal, 3월 선보인 오란씨 50주년 기념 신제품 오란씨 키위는 48kcal의 저칼로리를 구현했다. 장수 브랜드로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면밀한 변화가 필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저칼로리를 추구하는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도 인기다.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위한 이온음료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물처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저칼로리 음료다. 기존 포카리스웨트가 체내 수분보충을 위해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이온 등의 성분을 체액에 맞춰 기능적인 측면을 최적화했다면, 이온워터는 일상생활 중 갈증해소를 위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물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산뜻한 맛을 강조하고 칼로리를 낮춘 게 특징이다.

●나랑드사이다,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제로칼로리 나랑드사이다도 소비자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나랑드사이다의 매출은 11월 기준 전년 대비 100% 신장했다. 코로나19가 낳은 확찐자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2010년 6월 론칭한 나랑드사이다는 꾸준한 제품 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맛을 보완해왔다. 그 결과 제로칼로리 음료 특유의 맛에 편견이 있던 소비자들을 산뜻하고 깔끔한 맛으로 매료시키며 소비층을 더욱 탄탄히 넓혀왔다.

제로칼로리에 색소, 설탕,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은 '4 Zero' 사이다로, 산뜻한 맛과 톡 쏘는 청량감이 특징이다. 레몬 농축 과즙의 청량한 맛으로 향긋함은 물론 탄산이 주는 짜릿한 상쾌함을 선사한다.

최근에는 개그맨 김재우를 모델로 발탁해 일상 속 건강하게 즐기는 나랑드사이다를 유쾌하게 그려낸 CF가 관심을 모았다. 제로칼로리 나랑드사이다와 함께 칼로리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는 내용을 담았다.

회사 측은 "나랑드사이다는 국내 대표 제로칼로리 사이다"라며 "'새로운 제로의 시작, 제로칼로리 나랑드사이다'라는 브랜드 메시지와 함께 저칼로리 음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져갈 계획"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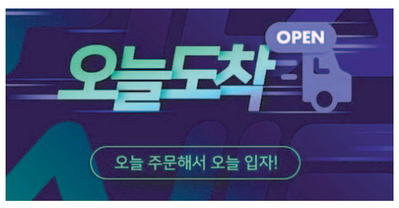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저칼로리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건강 관련 행사를 통해 소비자 접점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열린 전국 규모 피트니스 대회인 '2021 MUSA&WNGP'에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나랑드사이다와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를 협찬한 게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 관심 증대와 함께 저칼로리와 제로칼로리 음료 시장 확대가 본격화 됐다"며 "기존 탄산음료의 당과 칼로리는 낮추고, 맛은 끌어올리는 대체 소재 개발, 배합 등의 연구를 통해 더 맛있고 건강한 음료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휠라 "제품 주문서 수령까지 하루에 OK"

당일 배송 서비스 '오늘도착' 론칭
서울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



휠라의 당일 배송 서비스인 '오늘도착'. 사진제공 | 휠라

휠라가 28일 당일 배송 서비스인 '오늘도착'을 론칭했다.

휠라 공식 온라인 스토어 전용으로 제품 주문 및 결제, 수령까지 '단 하루'만에 이뤄지는 신속 배송 특화 서비스다. 휠라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회원가입을 마친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전 11시 50분까지 결제 완료 시 구매 당일 주문 제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전 지역 내 배송이 가능하며,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휠라는 물론 휠라 키즈, 휠라 언더웨어 등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휠라 패밀리 브랜드 제품 중 '오늘도착' 배너가 표시된 제품이 대상이다. '에센셜 롱기장 다운재킷'과 '킹덤 3.0 구스 롱다운재킷' 등 겨울 시즌을 위한 주력 다운재킷부터 온라인 전용 제품과 각종 신발, 액세서리 등이 포함됐다.

당일 배송비는 5000원으로 상품의 크기 및 수량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배송 준비 이후에는 배송지와 주문 변경이 불가능하다. 회사 측은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하는 이색 서비스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획했다"며 "겨울 시즌 방한 아이템뿐 아니라 연말과 새해 선물 준비로 쇼핑 고민이 높아가는 시기에 쾌속 쇼핑을 위한 오늘도착 서비스로 휠라의 다양한 제품을 특별하게 만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휠라 언더웨어는 '글리츠 앤 글램'을 선보였다.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연말 분위기가 가득 담긴 언더웨어 컬렉션이다. 아이템 전반에 레이스 소재와 메탈릭 로고 포인트를 활용해 화려하고 반짝이는 느낌을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현대백화점, '소망의 빛, 풍화' 키네틱 아트 전시

현대백화점이 1월 9일까지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키네틱 아트(움직임이 있는 예술작품) 전시 '소망의 빛, 풍화'를 선보인다. 민속놀이인 풍등놀이를 콘셉트로 했다. 하늘을 떠다니듯 천천히 움직이는 100여 개 풍등을 선보여 행복과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맥도날드, 기부금 적립 '행운버거' 한정 판매

맥도날드가 1월 26일까지 행운버거를 한정 판매한다. 행운버거는 2013년 첫 출시 이후 매년 연말에 선보이는 한정 메뉴로, 길쭉한 모양의 빵이 특징이다. 올해 행운버거는 기존 행운버거 골드와 해쉬브라운을 더한 행운버거 골드 스페셜 등 2종으로 구성했다. 맥도날드는 행운버거를 통해 새해 희망과 행운을 전할뿐 아니라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고객 참여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행운버거 단품 혹은 세트 1개 구매 시 100원씩 한국RMHC에 기부하며, 고객들의 동참으로 마련한 기부금은 중증질환 어린이 치료에 사용할 예정이다.

오리온, 친환경 포장재 적용 제품 확대

오리온이 '플렉소 인쇄' 라인을 추가 가동하며, 환경 친화적 포장재 적용 제품을 확대한다. 플렉소 인쇄는 양각 인쇄를 통해 잉크와 유해화학물인 유기용제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포장재 생산 방식이다. 잉크와 유기용제 사용량을 연간 800톤 절감할 수 있어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안산공장의 플렉소 인쇄 2호 라인을 본격 가동하면서 오리온 전체 제품 중 80%에 플렉소 인쇄 포장재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초코파이, 포카칩, 와클 등 38개 제품에 적용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포장재 혁신뿐 아니라 생산설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코오롱FnC 왁, 와키 룸 조성 '캐릭터 마케팅'

코오롱FnC의 골프웨어 '왁(WAAC)'이 악동 캐릭터 '와키'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을 강화한다. 와키는 왁을 대표하는 공식 캐릭터다. 장난기가 많아 상대방의 집중력을 흐리게 해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콘셉트다. 최근 골프 스튜디오 '더 프라자 골프'와 손잡고 서울 삼성점에 '와키 룸'을 조성했다. 코스 위 홀컵에서 튀어나오는 와키와 친구들을 형상화한 3D 오브제를 적용해 재미 요소를 더했다. 와키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구성했다. 회사 측은 "와키 캐릭터를 활용해 브랜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통해 2030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29일 (수) 음력: 11월 26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청색 길방:동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실속은 있는 날이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시시한 일들로 인해 훼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금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만 야기 시킨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생기는 날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다. 건강에 신경을 기울이고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의 상황에서 자제하며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앉아서 돈을 버는 날이 아니다. 움직여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흰색 길방: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다. 뜻하지 않는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대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오늘은 돼지날이다. 문제 발생 시 뱀띠가 해결해준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려거든 과감하게 실행하라.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니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날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킬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요하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받는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욕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일처리 과정에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사된다. 금전적 낭비가 따를 수 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의 날씨

29일(수)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
서울	40/20	0	6
인천	40/20	2	6
춘천	60/30	-5	5
강릉	30/20	2	9
대전	30/20	0	8
전주	30/30	2	8
광주	30/30	1	9
대구	20/20	-1	9
부산	20/20	3	11
창원	20/20	1	10
제주	30/30	7	12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3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